

금융위원회	보도자료		• 미래창조 금융
	보도	2016.8.18(목) 조간 이후	• 따뜻한 금융
	배포	2016.8.17(수)	• 튼튼한 금융
책임자	중소금융과장 신진창(02-2100-2990)	담당자	중소금융과 사무관 김성진(02-2100-2991)
	서울보증보험 상품개발부장 최성환(02-3671-7350)		중소금융과 사무관 홍상준(02-2100-2993)
			서울보증보험 상품개발팀장 손명룡(02-3671-7388)

제 목 : 은행권 사이트들 중금리 대출 현황 및 향후 계획
- 9.1일부터 4개 지방은행에서도 '사이트들' 중금리 대출 판매 개시

- ◆ 9개 은행(6000여개 지점)은 7.5~8.16일(30영업일)간 총 5,795명에 대해 606.9억원 규모의 사이트들 대출 지원
 - 그간 중신용 서민층 지원 확대를 위하여 지원기준 합리화, 실수요자 적극 발굴 등 운용개선 노력 지속
- ◆ 추가로, 9.1일(목)부터 4개 지방은행(828개 지점)에서도 '사이트들' 중금리 대출 공급 예정
 - 지방은행은 지역경제구조·소득수준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, 지역 중신용자 포용에 중점을 두고 상품을 운용할 계획
 - 지방은행의 참여로 은행 사이트들 대출 전국 판매망이 구축됨으로써, 중신용자의 금융접근성이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

1 사이트들 대출 지원 동향

※ 사이트들 대출 지원동향('16.7.21일 보도자료 등)을 업데이트한 내용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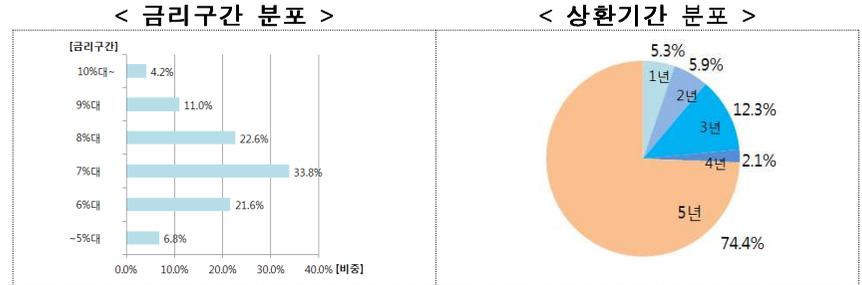
□ (개황) 7.5~8.16일간(30영업일) 9개 은행에서 총 5,795건(606.9억원) 지원

⇒ 제도 도입 초기임에도 일평균 193건(20.2억원) 수준으로 꾸준히 지원되는 등 비교적 빠르게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

* 계절효과(여름휴가)로 출시 첫 2주간 추이(264건, 27억원) 대비 다소 감소

□ (대출특성) 1인당 평균 대출액은 1,047만원이고, 대출 금리는 6~8%대가 78.0%, 상환기간은 74.4%가 5년 분할상환 선택

○ 판매채널별로는 오프라인(지점창구) 4,012건(81.4%), 온라인이 907건(18.6%)으로 나타남



□ (신용도·소득) 대출자 신용등급 4~7등급자가 대출건의 77.5%, 연소득 2~4천만원대 중위소득자가 72.8% 차지

< 소득수준별 대출 비중 >

	0~2천만	2~3천만	3~4천만	4~5천만	5천만~	계
대출건수	423	1,889	1,431	901	1,151	5,795
비중	7.3%	32.6%	24.7%	15.5%	19.9%	100%

○ 소득원별로는 근로소득자가 75.6%(4,381건), 사업소득자가 23.0%(1,334건), 연금소득자가 1.4%(80건) 순

□ (연령 등) 생애주기 특성상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자금수요도 많은 30~40대 대출자가 상당수(68.1%)를 차지

○ 다만, 재직기간 기준으로 사회초년생(2년 이하, 31.0%)부터 장기근속자(5년 이상, 37.8%)까지 다양하게 포용하는 모습



2 | 그간 운용개선 노력

◆ 7월 출시 후, 은행권은 중신용 서민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기준 합리화, 실수요 발굴 등 운용개선 노력 지속

❶ (지원기준 합리화) 그간 사잇돌 대출 실적을 토대로 파악된 중신용자의 특성을 반영하여, 세부 지원기준 등을 합리화

* 당초 도입취지에 따라, 기존 은행상품 대비 높은 사잇돌 대출의 금리대(6~10%)에 부합하는 중신용자를 최대한 포섭하려는 노력을 지속 중

< 은행별 지원기준 개선 사례 >

- (i) 기존 은행고객 대비 신청자의 제2금융권 대출이 많은 경향을 감안, 종전 상품과 달리 복수의 제2금융권 대출이 있더라도 신청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지원 가능하도록 기준 변경
- (ii) 종전 은행 내부신용등급 기준으로는 중신용자 신용도를 적정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, 자체 개발한 중신용자 전용평가 모형을 개발적용

❷ (실수요자 발굴) 사잇돌 대출을 통해 이자부담 경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를 적극적으로 발굴·연계

< 실수요 발굴 사례 >

- (i) 타대출 상담자 중에서도 카드론 등 고금리 이용 중인 고객 등에게 사잇돌 대출 소개 → 이자부담 경감을 요하는 실수요자 적극 발굴
- (ii) 거래고객 중 중신용자 등 잠재 수요자에 대한 이메일 발송 및 유선 상담 → 실수요자를 집중 타겟으로 한 정보제공 확대

❸ (절차 개선) 근로자 등 대출절차 진행에 많은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을 감안하여, 가급적 절차를 간소화

< 절차 개선 사례 >

- (i) 비대면 모바일 대출시, 국민연금 납입기록 등 재직여부가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, 별도의 유선확인 절차 생략
- (ii) 모바일 채널을 활용하는 은행들도 확산 추세
* 모바일 채널 활용 은행 : 신한, 우리 → 전북 (하나, IBK 검토 단계)

⇒ 앞으로도 중신용 서민층에 대한 원활한 지원 방안을 지속 모색

3 | 지방은행 사잇돌 대출 출시계획

□ (개요) 9.1일부터 9개 은행에 이어 4개 지방은행(부산, 광주, 대구, 경남)의 전국 828개 지점에서 사잇돌 대출을 추가 출시

⇒ 지역에 영업기반을 둔* 지방은행의 본격적 참여로, 은행권 사잇돌 대출의 전국 판매망이 확충되고, 중신용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도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

* 은행별 지방 지점망('16.7말) : (부산은행) 266개소 (대구은행) 255개소 (광주은행) 138개소 (경남은행) 169개소

* 既출시 지방은행도 현재까지 150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 금융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 상황

□ (상품구조) 대체적으로 여타 소득기준요건*, 대출한도, 대출기간** 등은 기존 은행권 사잇돌 대출과 유사

* 연환산 근로소득 2,000만원 이상, 사업·연금소득 1,200만원 이상
* 상환능력에 따라 1인당 최대 2,000만원 이내, 상환기간 5년 이내

○ 금리 수준은 “보험료 + 은행 수취분” 포함 6~12%대 예상
- (보증료) 연 1.8%~5.3% 수준(기존 은행 사잇돌과 동일)

- (은행 수취분) 조달원가, 업무비용 등 감안, 은행별 자율 결정

⇒ 다만, 지방은행은 지역경제 구조·소득수준* 등을 감안한 타겟 고객군 모색 등 시중은행에 비해 더 많은 지역 중신용자를 포용할 수 있도록 상품을 운용할 계획

* (지역별 소득, '14년 통계청) 서울 3,811만원 ↔ 경북 2,861만원, 전남 2,749만원 등

□ (신청방법) 4개 지방은행 828개 지점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

○ 부산은행의 경우 모바일 채널을 통한 대출 가능 [☞ 참고]

※ 한편,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 관련 세부사항은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8월말 별도 발표 예정
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http://www.fsc.go.kr>



넓게 듣겠습니다
바르게 알리겠습니다

참 고

지방은행 사이트들 대출 신청을 하려면?

- (대출 신청 방법·절차) 소득요건 등 대출요건 충족이 증명되는 경우 창구·모바일에서 당일 대출 가능
 - (창구 방문) 4개 지방은행 전국 828개 지점에서 방문·상담 → 심사 통과·필요 서류 증명시 즉시 대출 실행 가능
 - (모바일 창구) 부산은행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대출 가능

< 은행별 주요 문의처 >

	대표 문의처	인터넷·모바일	비고
부산은행	1588-6200 1544-6200	www.busanbank.co.kr www.sumbank.co.kr	*모바일 플랫폼(썸뱅크): 1800-0500 *전국 266개 지점
광주은행	1600-4000 062)239-5000	www.kjbank.com	*전국 138개 지점
대구은행	1566-5050 1588-5050	www.dgb.co.kr	*전국 255개 지점
경남은행	1588-8585	www.knbank.co.kr	*전국 169개 지점